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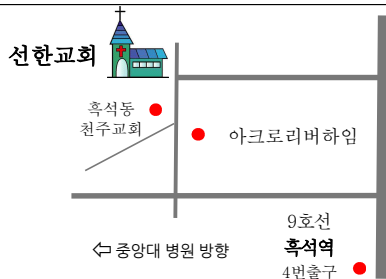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은 퇴 장 로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고 상 돈, 김 대 희	해외협력선교사	이금춘, 김인실
	박 희 태, 유 신 웅		조나단, 강야엘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장 로	조 윤 익, 박 영 근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고린도후서 1:12)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2부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0장 (통일찬송가 41장)	
교 독 문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찬 양 과 경 배	440장 (통일찬송가 497장)	
기 도	박영근 장로	
말 씬 봉 독	고린도후서 1장 12 ~ 24절	
설 교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자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잠25:14-28)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직 회** 오늘 2부 예배후에 영상 제직회가 있습니다.
- 3 부 예 배 신 설** 오늘부터 3부 예배(오후 1시 : 청년예배)를 신설합니다. 청년들은 3부 예배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ZOOM 으로 온라인 영상을 제공합니다.
-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2부 나누어 드립니다. 2부예배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2. 주중예배: 대면예배로 드리고 금요기도회는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읽기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시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시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 수험 생 을 위 한
기 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녁 8시, 올해 수험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 김유진, 김필립, 이지은, 장민우
수능일 : 2021년 11월 18일(목)

 1.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과 담대함과 체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2. 수시모집 지원 후 면접과 실기 준비중에 있는데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3. 어려움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되도록

한주간의 기도제목

-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고3 수험생들의 강한 체력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수 있도록

찬송 : ‘저 장미꽃 위에 이슬’ 442장(통 499)
본문 : 요한복음 4장 3~30절
말씀 : 코로나로 인해 만남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소나 정신과에서 진료받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세배정도 늘어났다고 하며, 대부분은 우울증으로 진단받는다고도 합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에서 외면받는 처지입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수도 없습니다. 여인이자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마음은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순간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제자로 변화되며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지극하신 사랑에 대해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4절에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모두가 기피하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들에게서조차 외면받는 한 죄인을 만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서 그 죄인을 꼭 만나셔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만남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에게 상당히 까칠하게 대합니다.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하나이까’,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모두 빈정대는 말투입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로소이다’라고 말한 뒤에, 예배 장소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고난이도의 외통수 질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셈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완전히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죄인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초청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에 여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 여인이 알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장소나 형식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여인이 알고 싶었던 것은 ‘내 삶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삶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었을까요? 그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라” 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이며,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며, 너를 찾아왔고 너의 죄를 용서하며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뜻이 모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의 영과 함께 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그 메시지 앞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수치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자유와 기쁨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곳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힘껏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제 목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자 (고후1:12-24)	
서 론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론	1. 바울의 진실성(사역의 기준)	
	(1) 바울의 고린도교회 방문 계획(15-16절)과 변경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비난(17절)	
	(2) 매사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행함(12절)	
	(3)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아멘)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18-20절)	
	(4)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23절)	
결 론	2. 교훈	
	(1) 바울이 고린도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	
	(2) 나는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가?	
	(3) ‘아끼는 마음’의 동기가 있는가?	
	삶의 분명한 기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실되고 거룩하게 행하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아끼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박영근 장로	윤호중 장로

매일 Q.T.		적용 대상이 어긋나면 훌륭한 통찰도 무익합니다	날짜 : 11월 8일
찬양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본문	욥기 20:12-29		
말씀요약	소발은 악인이 감추고 있는 악은 배 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며, 그가 삼킨 재물은 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를 비같이 쏟으셔서 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라고 합니다.		
묵상질문 1	음식으로 비유한 악인의 삶 20:12-23 ‘입에는 달지만 독이 되는 음식’ 비유에서 악의 어떤 속성이 강조되나요? 악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20:24-29 소발이 말하는 악인의 운명은 무엇인가요? 훌륭한 통찰이라 해도 적용이 잘 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절묵상	욥기 20장 29절 주변을 둘러보면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곤 합니다. 악인이 잘되는 현재의 모습에만 주목해 슬퍼하거나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곧 사라질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차지할 분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반면에 성도의 분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며 매일 마주하는 악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말씀으로 제 마음과 삶을 살피 악이 틈타지 않도록 분별하고 경계 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과 삶을 선불리 판단하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봄”	
찬양과 기도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새 406)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노벨상은 스웨덴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Alfred Bernhard Nobel)이 1895년 작성한 유언에 따라 매해 인류의 문명 발달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노벨물리학상, 노벨화학상, 노벨생리학상, 노벨문학상, 노벨평화상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2016년에도 어김없이 분야별 노벨상 수상자들이 선정되었는데, 그중 노벨문학상을 미국 포크록 가수 밥 딜런(Bob Dylan)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밥 딜런의 본명은 ‘로버트 앨런 지머맨’입니다. 하지만 그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영국 시인 토마스 딜런(Thomas Marlais Thomas)의 성을 따라 자신의 성을 ‘딜런’으로 바꾸었습니다. 밥 딜런은 토마스 딜런의 여러 시를 자신이 쓴 곡의 가사로 사용해 불렀고, 이후에는 토마스 딜런의 신앙을 본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사가 가수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사한 가사들이 문학적으로 인정을 받아 2016년 노벨문학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면 바라보는 그 사람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욥기 21:17~34
묵상포인트	죽음은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일반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심판을 보류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요 그분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일회일비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진정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악인은 이 땅에서 벌을 받아 자멸한다는 소발의 말에 욥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23~26절)
적용하기	악인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바라보아야 할 분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진정한 위로가 결여된 교훈	날짜 : 11월 12일
찬양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본문	욥기 22:21-30		
말씀요약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충고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불의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욥이 보화를 티끌처럼 여기면 전능자가 보화가 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1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2:21-26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라는 엘리바스의 말은 신앙인의 물질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화는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22:27-30 엘리바스가 말하는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도 응답과 용서가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욥기 22장 29절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바스도 욥의 경건함과 무죄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욥에게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고집스레 타이릅니다. 교만했음을 실토하고 겸손하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은 엘리바스 자신이었습니다. 작은 경험과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모두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제게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럴듯한 충고를 앞세우지 않도록 겸손함을 더해 주소서.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 가장 귀한 보배이신 주님만으로 제 삶을 채우게 하소서.		

매일 Q.T.		바른 경청의 자세가 위로의 시작입니다	날짜 : 11월 9일
찬양	찬송가 369장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본문	욥기 21:1-16		
말씀요약	욥은 악인이 장수하며 세력이 강한 이유는 무엇이나고 묻습니다. 어떤 악인의 후손은 굳건하고 집안도 평안하며 가축도 날로 늘어납니다. 그들은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전능자를 아는 것도, 주님의 도리를 아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욥은 이런 악인의 계획이 자신과는 멀다고 말합니다.		
묵상질문 1	내 말을 잘 들으라 21:1-6 욥이 친구들에게 간청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난당하는 지체를 정죄하기보다 그의 괴로운 심정을 들어 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묵상질문 2	왜 악인은 오래 살고 번영을 누리는가 21:7-16 욥의 말에 따르면, 현재 번영을 누리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현재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한절묵상	욥기 21장 13,16절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약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욥은 악인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평화롭게 죽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행복’은 본래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선한 것을 주신 까닭에 욥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악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즉 ‘구원’을 그분이 택하신 백성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막막해 보여, 악인의 형통함을 내심 부러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악하게 사는데도 잘되는 것은 무서운 형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잠시뿐인 이 땅의 풍여함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비교하지 않게 하소서.		

매일 Q.T.		악인의 평안히 사는 세상, 신앙적 기대와 다른 현실	날짜 : 11월 10일
찬양	찬송가 425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본문	욥기 21:17-34		
말씀요약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악을 그에게 갚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안히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습니다. 그러니 죽으면 매한가지입니다. 욥은 악인의 소행에 대한 보응이 없다고 하면서, 친구들의 대답은 헛된 위로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묵상질문 1	악인의 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던가 21:17-26 죽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는 사람과 고통 가운데 죽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통스러운 죽음을 허락하신 주님 뜻은 무엇일까요?		
묵상질문 2	너희가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21:27-34 친구들이 전한 위로의 말이 욥에게 ‘헛된’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는 말이 ‘헛된 위로’나 ‘거짓’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절묵상	욥기 21장 26절 육신의 죽음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매한가지’로 찾아옵니다. 욥은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모든 죽음이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벌로 주셨지만, 영적 생명과 죽음에는 차이를 두셨습니다. 영적 죽음은 결코 모두에게 ‘매한가지’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죄인보다 고단하거나 비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너머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되는 고통과 바뀌지 않는 현실에 낙심했던 제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잣대와 사람의 평가로 삶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 Q.T.		확증 편향성에 항상 주의하십시오	날짜 : 11월 11일
찬양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본문	욥기 22:1-20		
말씀요약	엘리바스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욥의 죄악을 나열하며 비난합니다. 그는 욥이 권세를 남용하고 과부와 고아를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홍수가 욥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인이 전능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형통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묵상질문 1	네 악이 크지 않느냐 22:1-11 엘리바스가 욥의 죄악이 끝이 없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것만 보는 경향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묵상질문 2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지 않느냐 22:12-20 엘리바스가 인용한 욥의 말(13-14절)은 본래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 편리대로 상대의 말을 왜곡해서 인용하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한절묵상	욥기 22장 4-5절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가 뿌린 죄와 악행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욥이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겪는 여러 고난은 도덕성이나 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의 훈계는 ‘편견’에 빠진 어리석은 말일 뿐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말과 생각은 나와 상대방을 멎게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고난에 처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쉽게 추측하고 정죄하며 수근거렸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 깨닫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했던 좁은 시선을 거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소서. 높이 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소서.		